

## 부양형태에 따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의 차이 및 영향 변수에 관한 연구 -재가, 주간보호시설, 시설거주 노인의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김윤정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 A Study on Differences in the Caregiv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s by Type of Caregiving

-Focused on Caregivers in Home Stay, Day Care Center, and Nursing Home Situations-

Kim, Yun Jeong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Seosan, Korea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differences by type of caregiving using data on three groups of caregivers, 177 from home stay situations, 189 from day care centers, and 138 from nursing homes. First, the result shows that characteristics of both caregivers and elders differ by type of caregiving. Second, caregivers in the home stay situation have the highest caregiving burden of the three groups. Third, from examination of the related variables, the caregiving burden of home stay caregivers is affected by family income, caregivers' health, type of job, and whether or not the elder has symptoms of dementia. Also, the study reveals that emotional services for elders reduce the aggravation of family relations and economic burden, but that instrumental services highly increase economic burden. It reveals that caregivers of elders in day care centers, especially those who are in bad health,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feelings of constriction, aggravation of family relations, and economic burden. On the other hand, caregivers who receive more emotional services have better experiences in family relations, including relations with the elder. In case of the elders of nursing homes, if the main caregiver is a daughter-in-law, aggravation of family relations is higher than if the main caregiver is a spouse. Finally, the caregiver's burden is affected by their own health and income, and by whether the elder has symptoms of dementia or stroke.

**Key words:** type of caregiving, caregiving burden, home stay, day care center, nursing home

접수일: 2007년 1월 10일 채택일: 2007년 2월 20일

Corresponding Author: Kim, Yun Jeong Tel: 82-41-660-1251 Fax: 82-41-660-1329

E-mail: twoyun21@hanmail.net

## I. 서론

전체 인구 중 노인의 인구가 9%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노인들은 가족에 의해 부양을 받고 있다.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노인 중 0.67%만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도 0.76%에 불과하다(대한노인신문사 2006). 또한, 한국의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14.8% 정도인데, 이들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가족에 의한 부양서비스를 받고 있다(공적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2005). 이는 노인의 자립성과는 관계없이 가족이 개인의 노후보장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미미한 것과 맞물려 가족부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부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가족부양자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부양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윤정 2000). 특히, 우리나라 노인부양의 절대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쇠퇴하고 있으며 소자녀관으로 인해 부양을 제공할 젊은 세대가 부족하고, 따라서 약화된 가족의 부양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가복지시설이용 및 시설부양 등 다양한 부양형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노인과 부양자가 재가복지시설이나 양로시설을 이용하는지, 그들이 경험하는 부양부담의 수준은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한 부양부담과 관련된 변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시설부양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양가치관에 덜 위배되며 비용에 비해 사회적 순편의이 더 크다는 점(원종욱·한혜경·황성철·김정희 2000)이 큰 잇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고, 시설부양의 경우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대한노인신문사 2006)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가운데 김윤정(2006)은 공적부양서비스의 이용이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공적부

양이 가족부양자들의 사회적 지지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서 노인을 가정내에서 부양하느냐 혹은 주간보호시설이나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럼에도 부양형태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나 부양부담 영향변수와 관련된 연구는 노인부양에 있어 다른 영역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공적부양서비스의 사회적 지지 기능을 파악하고자 연구들(김성호 2001; 이해자 2006; 임미영 2005)도 대체로 재가노인과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의 부양자를 비교하거나, 시설입소 노인의 부양자나 주간보호시설이용 노인의 부양자 등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 이용 전후를 비교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부양자들이 부양부담으로 인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의 부양을 희망한다는 연구결과(김성호 2001)를 통해 부양형태에 따라 부양부담이 달라질 뿐 아니라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 미치는 변수 또한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미치는 변수로 부양자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부양자가 노인을 돌보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부양자의 연령, 학력, 부양자와 노인의 관계, 노인의 연령, 성별, 노인의 중상정도 등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부양자가 제공하는 부양서비스 역시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조진명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양자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양서비스를 부양부담 영향변수로 선정하여 집단 간 비교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양형태 따라 부양부담과 그 영향변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의 부양자,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의 부양자,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첫째, 부양자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부양형태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양형태에 따라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양형태에 따라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 미치는 변수(주부

양자와 피부양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양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는가? 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 노인부양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간과해온 다양한 부양형태를 살펴봄으로서 노인부양의 다양한 측면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사적부양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부양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양자 및 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형태의 차이

먼저 재가노인과 주간보호시설이용 노인 및 그 부양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부양자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났고, 노인의 성별과 배우자 유무, 일상생활동작능력,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재가치매노인 주 부양자는 주간보호시설치매노인 주부양자에 비해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다는 데 연구결과(마법순 1999; 이수진 등 2005; 이현순·오진주 2002; 이해자, 2006)가 일관적이다. 반면, 부양자의 직업이나 건강상태에 따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의 차이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즉, 주간보호시설이용 치매노인의 주부양자가 재가치매노인의 주부양자에 비해 직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수진 등(2005)의 연구결과와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이해자(2006)의 연구결과가 있다. 주부양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이수진 등(2005)의 연구에서는 재가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편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해자(2006)의 연구에서는 재가치매노인 부양자의 건강수준이 더 좋은 편이라고 하였다.

노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남자노인의 경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가정부양만을 받는 경우가 많고(이수진 등 2005), 재가치매노인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에 비해 ADL점수가 더 나쁘다(이혜자 2006).

또한, 모든 경우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를 보면 며느리가 부양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가 주부양자이거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가정부양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이혜자 2006).

따라서 부양자가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고, 노인이 남자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일상생활동작능력이 좋지 않은 경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가정부양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재가노인과 시설거주노인 및 그 부양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임미영과 김윤정(2006)의 연구만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치매노인의 부양자가 여자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며느리이며, 치매노인이 여자이고 70세 이상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시설거주보다는 가정내에서 부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주부양자가 며느리인 경우, 그리고 부양자의 연령이 많은 경우의 노인은 가정부양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에는 일치하나 다른 변수들의 경우는 연구에 따라, 그리고 비교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 2. 부양형태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

부양형태에 따라 노인부양부담에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인의 시설입소 후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감소됨을 밝히고 있다.

먼저, 재가노인의 부양자와 주간보호시설이용 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노인이 주간보호시설이용에 따라 치매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이 감소되었음으로 입증하는 연구는 다수 있다. Guttman(1991)과 Gottlieb와 Johnson(1995), 그리고 Zarit 등(1998)은 치매노인부양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부양노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후, 이용 전에 비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우울감 등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의 김선옥(2001)과 신영미(1998) 역시 피부양노인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한 후 부양자들의 부양부담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재가노인 부양자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비교하기보다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주간보호시설 이용의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해자(2006)는 치매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가노인의 부양자와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5개 영역에서 부양부담을 비교한 결과, 재가노인 부양자에 의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수진 등(2005)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재가 치매노인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담감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사회활동제한, 관계의 변화, 경제활동상의 부담, 건강상의 부담영역에서 재가 치매 노인 부양자의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자(2006), 이수진 등(2005)의 연구는 위의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의 주부양자에 한정되어 전체 부양자의 부양부담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재가노인의 부양자와 시설입소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비교한 연구 중, Pratt 등(1986)의 연구에 의하면, 재가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시설입소 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성호(2001)는 시설 입소 이전 즉 가족 부양 시와 비교하여 입소 이후에 부양자의 경제활동 여건, 부양자의 건강변화, 가사시간 변화, 개인 자유시간 변화, 가족 대화시간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심리적 변화,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기회의 변화, 친구 이웃과의 관계 변화, 재정적 부담변화 등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적 부담 중 죄의식을 제외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즉, 노인의 시설 입소 후 부양자의 부양부담은 감소되었다. 또한 임미영 등(2006)은 재가 치매노인의 부양자와 시설치매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가 치매노인의 부양자가 시설치매노인의 부양자에 의해 속박감과 소진 및 가족관계악화를 더 높게 경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피부양노인의 시설입소와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간의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노인의 시설 입소 후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부양을 하는 부

양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문제가 있고, 재가노인의 부양자와 시설노인의 부양자간의 부양부담을 비교한 임미영 등(2006)의 연구는 치매노인에만 한정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의 부양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부양자,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의 부담을 비교한 김윤정(2006)은 세 집단의 부양부담의 차이가 명확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부양형태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를 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재가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비해 높고, 또한 재가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시설입소 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재가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이 높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주간보호시설이나 시설입소의 경우 일반 와병노인에 비해 치매노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나 이는 일반화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둘째, 부양형태에 따른 부양부담을 비교함에 있어 김윤정(200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세 집단 간 부양부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적부양인 재가부양, 공적부양인 시설부양, 그리고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중간형태라 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이용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 3. 부양형태에 따른 부양부담 관련 변수

부양형태에 따라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를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즉, 부양형태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윤정 2006; 임미영 등, 2006; 이해자 2006)들은 부양형태에 따라 부양부담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임미영 등(2006)과 이수진 등(2005)은 부양자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에 초점을 두었고, 이해자(2006)는 주간보호시설이용여부가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

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김윤정(2006)은 노인 부양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가족이 제공하는 부양 서비스의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노인이 와병상태이거나 치매상태로 부양자와 노인간의 관계가 상호호혜적이지 못한 경우 노인이 제공받는 부양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부양자의 삶에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김윤정 2000)는 부양서비스의 제공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고, 특히 부양서비스와 부양부담간의 관계가 각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가족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양형태(재가노인의 부양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부양자, 시설거주 노인의 부양)에 따른 부양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계층과 건강상태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먼저 주간보호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의 부양자는 제외하였고, 시설거주 역시 유료시설에 제한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ADL 점수를 이용하여 제한하였다. 또한 재가노인과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의 주부양자는 노인과 동거하면서 주된 부양을 제공하는 자이며, 시설노인의 부양자 역시 현재 노인의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부양자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재가노인의 주부양자는 와병노인의 동거 부양자들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전체 250부를 배부하여 205부를 회수하였고 기능장애 점수가 평균 1.5점 이하인 사례, 동거부양하지 않는 사례, 그리고 응답이 부실한 사례를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177부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실비나 유료로 이용하는 노인의 부양자는 우편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간보호센터에

협조문을 보낸 뒤 주간보호센터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센터에서 설문지를 취합하여 다시 본 연구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노인을 통해 주부양자에게 설문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전체 280부를 발송했으며 2차례의 독촉 전화를 한 뒤 최종적으로 197부가 회수되었다. 분석을 위해 ADL점수가 평균 1.5점 이하인 사례를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189부를 분석에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는 유료양로원과 병원에서 3달 이상 거주 또는 입원하는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 영락원, 수원유당마을과 홍성노인전문 병원에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하였다. 각 기관에 설문지를 50부 정도 비치를 하고 기관에 방문하는 가족이나 친척 중 현재 노인의 주 부양자가 방문을 하는 경우 설문을 부탁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에 설문지를 맡긴 뒤 보름에서 한 달 뒤에 회수하였다. 전체 150부를 배부하여 141를 회수하였고 노인의 연령이 60세 미만인 3사례를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13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노인의 평균연령은 재가노인의 경우 77.2세,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은 77.7세, 시설거주노인은 78.5세로 집단 간 별 차이가 없으며, 주부양자의 평균연령은 재가노인부양자는 52.3세,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 부양자는 48.5세, 시설거주노인 부양자는 49.4세로 재가노인부양자의 연령이 다소 높다. 가정소득은 재가노인가정은 220만원, 주

Table 1.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and the old aged

		M	SD
Age of the old aged	home stay	77.237	7.6038
	day care center	77.707	7.3328
	nursing home	78.493	6.4403
Age of caregiver	home stay	52.277	11.1328
	day care center	48.535	10.9908
	nursing home	49.406	10.5323
Income	home stay	220.4242	109.51307
	day care center	293.5192	172.37152
	nursing home	300.2174	181.44379

간보호시설가정은 294만원, 시설거주가정은 300만원으로 재가노인의 가정소득이 낮은 편이다 (Table 1).

## 2. 측정도구

### 1) 부양부담

서병숙과 이신숙(1993)의 부양스트레스 척도에 ‘치료(간병비)’ 때문에 다른 곳에 생활비를 쓰기 부족하다, 노인의 간호와 치료에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 부양이 소득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하였다’의 3개 문항을 추가한 1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를 재구성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재가노인부양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부양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거주 노인의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각 요인을 맞추는 작업을 하였다. 집단에 따라 서로 엇갈려 다른 요인으로 분리된 문항은 없었고,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제 1 요인은 속박감으로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가 없다, 취미나 모임활동 등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없다’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2 요인은 가족관계악화로 ‘노인과의 관계에 화가 난다, 부부관계가 나빠진다, 모시는 노인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등의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 3 요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간병비) 때문에 다른 곳에 생활비를 쓰기가 부족하다’ 등의 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8에서 .89까지이다.

### 2) 부양서비스

부양서비스는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설문지를 만들었다. 가정에서 노인과 동거를 하면 부양하는 경우와 시설에서 부양을 하는 경우는 부양서비스의 제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먼저, 재가노인부양자와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는 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정서적 부양은 김윤정(2000)의 연구에서 사용

된 척도 중 정서적 부양서비스와 관련된 문항 중 ‘노인에게 어려운 일이나 괴로움이 생겼을 때 의논상대가 되어 드린다. 노인이 즐거우시도록 함께 오락 시간을 갖는다’ 등의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적 부양은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작수행 능력을 측정한 문항과 같은 문항으로, 노인의 기능적 취약을 보완하기 위해 부양자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과업중심적(task-orientated) 서비스로 6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기 3점 리커트 형으로 측정하였으며,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의 신뢰도는 각기 Cronbach's  $\alpha$  값은 .69와 .85이다.

다음으로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은 재가노인부양자와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는 한 문항과 동일한 문항에 대해 시설입소 후에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로 질문을 하였다. 즉, 시설입소 후에 본인이나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을 주고, 시설 관계자가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으로 체크하게 하였으며, 신뢰도는 산출하지 않았다.

### 3) 일상생활활동작능력(ADL)

일상생활활동작능력(ADL)은 ‘걷기, 몸단장하기, 목욕하기, 용변보기, 식사하기, 옷갈아 입기’의 6 개 문항에 대해 혼자서 가능(1점), 부분적 도움필요(2점), 혼자서 불가능(3점)을 주어 측정하였고 ADL점수가 평균 1.5점 미만인 사례는 삭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집단별로 Cronbach's  $\alpha$  값은 .77에서 .93이다

## 3. 자료분석

SPSSWIN 12.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신뢰도분석, one way-ANOVA,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먼저 척도의 신뢰도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부양자 및 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형태의 차이는 교차분석과 one way-ANOVA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양 형태에 따른 영향변수의 차이는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양자 및 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형태의 차이

노인과 부양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노인의 질환유형과 중상정도에 따라 부양형태가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Table 3).

먼저 Table 2은 부양자의 성, 연령, 가정소득, 부양자의 건강상태, 근무형태, 노인과 부양자와

의 관계에 따라 부양형태에 차이가 나는가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 본 결과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부양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세 집단 모두 부양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으나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남녀 비율이 비슷하였다. 즉, 시설거주 노인의 부양자는 남자부양자가 47.1%, 여자부양자가 52.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자부양자의 숫자가 많았다. 다음으로, 부양자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40

Table 2.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and the old aged by type of caregiving

	Property of the old aged	Type of caregiving			$\chi^2$ value
		Home stay N(%)	Day care center N(%)	Nursing home N(%)	
Sex	male	29(16.4)	36(19.0)	65(47.1)	45.415***
	female	148(83.6)	153(81.0)	73(52.9)	
	total	177(100.0)	189(100.0)	138(100.0)	
Age	under 39	18(10.3)	35(18.5)	24(17.4)	14.240*
	40-49	59(33.7)	81(42.9)	48(34.8)	
	50-59	59(33.7)	43(22.8)	45(32.6)	
	60 over	39(22.3)	30(15.9)	21(15.2)	
	total	175(100.0)	189(100.0)	138(100.0)	
Income	under 100	35(20.0)	50(26.5)	14(10.1)	38.485***
	101-200	74(42.3)	37(19.6)	44(31.9)	
	201-300-	44(25.1)	60(31.7)	39(28.3)	
	301 over	22(12.6)	42(22.2)	41(29.7)	
	total	175(100.0)	189(100.0)	138(100.0)	
Health of caregivers	good	57(32.6)	68(36.6)	70(50.7)	11.839*
	middle	80(45.7)	78(41.9)	43(31.2)	
	bad	38(21.7)	40(21.5)	25(18.1)	
	total	175(100.0)	189(100.0)	138(100.0)	
	full-time	48(28.1)	40(24.2)	74(53.6)	
Occupation	part time	16(9.4)	23(13.9)	25(18.1)	47.823***
	housewife, other	107(62.6)	102(61.8)	39(28.3)	
	total	171(100.0)	165(100.0)	138(100.0)	
	spouse	30(16.9)	17(9.1)	10(7.2)	
Relation with the old and caregivers	daughter(son)-in- law	86(48.6)	98(52.7)	39(26.3)	7.221*
	daughter, son, other	61(34.5)	74(38.2)	89(66.5)	
	total	177(100.0)	186(100.0)	138(100.0)	

\*p<.05, \*\*\*p<.001

대와 50대가 많으나 재가노인부양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60세 이상인 경우가 많고, 주간보호시설부양자와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는 39세 이하의 젊은 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간보호시설이나 시설거주와 같은 공적부양을 젊은 세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소득을 보면 재가노인 부양자의 가정소득은 101만원에서 200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 부양자의 가정소득은 201에서 300만원이 가장 많고,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는 1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비율 분포를 보였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301만원 이상인 경우가 보다 많다. 따라서 시설거주노인 부양자의 가정소득이 다른 집단보다 높으며 이는 가정 평균소득에서도 잘 나타났다.

부양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재가노인의 부양자와 주간보호시설이용 노인의 부양자는 중간정도라도 응답한 비율이 높으나 시설거주 노인의 부양자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재가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다른 집단보다 더 나쁘다고 보고한 이수진 등(200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음으로 부양자의 근무형태에서도 차이가 났는데, 재가노인의 부양자와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의 부양자는 주부나 무직 등 집안에 부양자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는 전일제 근무를 하는 부양자가 53.6%로 절반을 넘었다. 부양자가 전일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노인이 시설에 입주하게 되었는지, 혹은 노인이 시설에 입소했기 때문에 전일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설거주노인의 주부양자가 남성이 많다는 점과 일관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를 보면, 가정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재가노인의 부양자와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의 주부양자는 며느리 혹은 사위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는 주로 아들과 딸, 친인척인 것으로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old aged by type of caregiving

		Type of caregiving			$\chi^2$ value
Property of the old age		Home stay N(%)	Day care center N(%)	Nursing home N(%)	
Sex	male	53(30.1)	44(23.3)	45(32.6)	3.899
	female	123(69.9)	145(76.7)	93(67.4)	
	total	177(100.0)	189(100.0)	138(100.0)	
Age	60-69	32(18.3)	27(14.3)	12(8.7)	6.122
	70-79	67(38.3)	79(41.8)	63(45.7)	
	80 over	76(43.4)	83(43.9)	63(45.7)	
	total	175(100.0)	189(100.0)	138(100.0)	
Disorder	dementia	70(39.5)	105(55.6)	52(37.7)	28.732***
	stroke	56(31.6)	45(23.8)	39(28.3)	
	dementia+stroke	13(7.3)	18(9.5)	7(5.1)	
	illness	36(20.3)	21(11.1)	40(29.0)	
	total	177(100.0)	189(100.0)	138(100.0)	
Symptom	minor	82(42.3)	114(57.9)	43(30.5)	34.456***
	moderate	83(42.8)	69(47.5)	67(47.5)	
	serious	27(13.9)	14(7.1)	31(22.0)	
	total	177(100.0)	189(100.0)	138(100.0)	

\*p&lt;.05, \*\*p&lt;.01, \*\*\*p&lt;.001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집단과는 달리 재가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부양자인 경우가 다른 집단 보다 많았다(Table 2).

다음으로 Table 3은 노인의 성, 연령, 질환유형, 중상정도에 따라 부양형태에 차이가 나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그 결과 노인의 질환유형, 중상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노인이 치매를 앓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중에서도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의 경우 치매를 앓는 경우가 55.6%로 절반이 넘고 치매와 뇌졸중을 모두 앓고 있는 노인까지 포함한다면 65.1%에 달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주간보호시설이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로 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재가노인과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의 경우는 치매 다음으로 뇌졸중을 앓는 비율이 높은데 반하여 시설거주노인은 뇌졸중과 심신허약(와병상태)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증상의 경우는 재가노인과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의 경우는 경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지만,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는 노인의 증상정도가 중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중증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2.0%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피부양노인의 증상정도가 심각한 편이다(Table 3).

## 2. 부양형태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

부양형태에 따라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 one way-ANOVA를 실시

하였다(Table 4).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가노인부양자와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부양자, 시설거주 노인 부양자의 집단 간 비교를 보면, 속박감과 가족관계악화는 재가, 주간보호, 시설거주 순이지만, 경제적 부담은 재가, 시설, 주간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재가부양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양부담의 모든 하위영역에서의 부담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거주부양자는 다른 부담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가장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시설이용 노인의 부양자는 속박감과 가족관계악화는 중간정도의 수준이나 경제적 부담에서는 가장 적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부양형태에 따른 부양부담 영향 변수

재가노인의 부양자,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의 부양자,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양부담(속박감, 관계악화, 경제부담)을 종속으로 두고, Table 2과 Table 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및 부양서비스 변수를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의 수가 부양형태 별로 봤을 때 138명에서 189명으로 샘플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를 선별하였다. 부양자의 나이는 부양부담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Table 4. Caregiving burden by type of caregiving

		M	SD	Duncan	F value
Constriction	home stay	2.489	.613	c	102.803***
	day care center	1.905	.789	b	
	nursing home	1.380	.603	a	
Aggravation of family relation	home stay	1.978	.543	c	34.883***
	day care center	1.718	.565	b	
	nursing home	1.474	.470	a	
Economic burden	home stay	2.048	.681	c	30.307***
	day care center	1.520	.613	a	
	nursing home	1.826	.656	b	

\*\*\*p<.001

았고, 노인의 증상정도도 부양부담의 하위요인 중 2가지 이상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4개의 변수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부양자의 성별, 가정소득, 부양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근무형태,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 노인질환, 정서적서비스, 도구적서비스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에서부터 Table 7까지에 제시하였다. 또한 부양자의 성별, 부양자의 근무 형태,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 노인질환은 더미변수화 하여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부양자의 성별은 남자, 근무형태는 전일제,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노인질환은 치매이다.

### 1) 재가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Table 5에서 보듯이 재가노인 부양자의 속박감에는 부양자 자신의 건강상태와 노인의 질환유형

1, 노인의 질환유형3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속박감을 적게 느끼고, 노인이 치매성 질환을 앓는 경우에 비해 뇌졸중을 앓는 경우, 그리고 와병상태인 경우 속박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개의 변수는 재가노인 부양자의 속박감은 25.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개의 변수 중 노인질환3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양자의 관계악화에는 부양자 자신의 건강상태와 근무형태2,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2, 노인의 질환유형1, 노인의 질환유형3, 그리고 정서적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배우자에 비해 아들이나 딸인 경우, 노인이 치매성 질환을 앓는 경우에 비해 뇌졸중을 앓는 경우와 와병상태인 경우, 정서적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재가노인의 부양자는 가족이나 노인과의 관계악화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양자

Table 5. Caregiving burden of home stay caregiver for the elders

	Constriction		Aggravation of family relation		Economic burden	
	B	$\beta$	B	$\beta$	B	$\beta$
Sex of caregivers(1=female) <sup>a</sup>	.001	.004	-.016	-.011	-.035	-.019
Income	-.001	-1.592	.000	-.040	-.002	-.303***
Health state of the caregivers	-.159	-2.517*	-.215	-.289***	-.065	-.070
Occupation1(1=part-time) <sup>a</sup>	.119	.749	-.011	-.006	-.032	-.014
Occupation2(1=housewife) <sup>a</sup>	.062	.559	.198	.177*	.006	.004
Relation1(1=daughter(son)-in-law) <sup>a</sup>	.103	.752	-.115	-.106	.188	.138
Relation2(1=daughter, son) <sup>a</sup>	-.109	-.749	-.292	-.256*	.157	.110
Disorder1(1=stroke) <sup>a</sup>	-.217	-1.991*	-.320	-.275**	.157	.128
Disorder2(1=dementia+stroke) <sup>a</sup>	.135	.736	-.043	-.020	.318	.118
Disorder3(1=illness) <sup>a</sup>	-.516	-4.381***	-.213	-.157*	-.178	-.105
Emotional service	.038	.433	-.163	-2.168*	-.222	-.168*
Instrumental service	.159	1.847	.027	.373	.279	.219**
Regression invarianceless		2.583		2.934		2.141
R <sup>2</sup>		.252**		.312***		.242***

\*p<.05 \*\*p<.01 \*\*\*p<.001,

a=dummy variable : sex of caregiver(1=female, 0=male), occupation1(1=part-time, 0=full-time, housewife) occupation2(1=housewife, 0=full-time, part-time), relation1(1=daughter(son)-in-law, 0=spouse, daughter, son), relation2(1=daughter, son, 0=spouse, daughter(son)-in-law), disorder1(1=stroke, 0=dementia, dementia+stroke, illness), disorder2(1=dementia+strokes, 0=dementia, stroke, illness), disorder3(1=illness, 0=dementia, stroke, dementia+strokes)

가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에 비해 가정주부인 경우 가족 및 노인과의 관계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개의 변수는 재가노인 부양자의 관계악화를 31.2% 설명하며, 12개의 변수 중 정서적 서비스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Table 5).

마지막으로 부양자의 경제부담에는 가정소득과 정서적 서비스, 도구적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정서적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록 경제적 부담은 낮아지나 부양자가 노인에게 도구적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경제적 부담을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개의 변수는 재가노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24.2% 설명하며, 12개의 변수 중 가정소득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Table 5).

## 2)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 부양자의 속박감에는 부양자 자신의 건강상태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속박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개의 변수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 부양자의 속박감을 12.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다음으로 부양자의 관계악화에는 부양자 자신의 건강상태와 정서적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정서적 서비스를 많이 제공 할수록 가족이나 노인과의 관계악화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개의 변수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 부양자의 관계악화를 17.2% 설명하며, 12개의 변수 중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

Table 6. Caregiving burden of caregivers for the elders in day care centers

	Constriction		Aggravation of family relation		Economic burden	
	B	β	B	β	B	β
Sex of caregivers(1=female) <sup>a</sup>	-.008	.004	.079	.054	-.093	-.058
Income	.000	.011	.000	.086	.000	.035
Health state of the caregiver	-.268	-.255**	-.207	-.272***	-.248	-.300***
Occupation1(1=part-time) <sup>a</sup>	.164	.071	-.011	-.007	.084	.046
Occupation2(1=housewife) <sup>a</sup>	-.085	-.052	-.046	-.039	-.074	-.058
Relation1(1=daughter(son)-in-law) <sup>a</sup>	-.410	-.261	.216	.189	-.374	-.302
Relation2(1=daughter, son) <sup>a</sup>	-.253	-.157	.099	.085	-.333	-.263
Disorder1(1=stroke) <sup>a</sup>	-.213	-.115	-.075	-.056	-.013	-.009
Disorder2(1=dementia+stroke) <sup>a</sup>	-.429	-.161	-.025	-.013	.166	.079
Disorder3(1=illness) <sup>a</sup>	-.241	-.096	-.195	-.107	-.266	-.135
Emotional service	-.039	-.023	-.237	-.199*	.011	.008
Instrumental service	.159	.118	-.001	.001	.011	.010
Regression invariableness		2.673		2.535		2.377
R <sup>2</sup>		.125		.172*		.163*

\*p<.05 \*\*p<.01 \*\*\*p<.001,

a=dummy variable : sex of caregiver(1=female, 0=male), occupation1(1=part-time, 0=full-time, housewife)

occupation2(1=housewife, 0=full-time, part-time), relation1(1=daughter(son)-in-law,

0=spouse, daughter, son), relation2(1=daughter, son, 0=spouse, daughter(son)-in-law),

disorder1(1=stroke, 0=dementia, dementia+stroke, illness), disorder2(1=dementia+strokes,

0=dementia, stroke, illness), disorder3(1= illness, 0=dementia, stroke, dementia+strokes)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마지막으로 부양자의 경제부담에는 부양자의 건강상태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부담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2개의 변수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16.3% 설명하였다(Table 6).

### 3) 시설거주 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Table 7에서 보듯이 시설거주노인 부양자의 속박감에는 부양자의 건강상태, 근무형태2, 노인의 질환유형2, 도구적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속박감을 적게 느끼며, 근무형태가 전일제에 비해 가정주부인 경우 속박감을 적게 느낀다. 반면 노인이 치매를 앓는 것에 비해 치매와 뇌졸중을 같이 앓는 경우, 도구적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속박감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

개의 변수는 시설거주노인 부양자의 속박감을 18.4% 설명하며, 부양자의 근무형태2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거주노인 부양자의 관계악화에는 가정소득, 부양자 자신의 건강상태와 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1, 노인의 질환유형2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이나 노인과의 관계악화를 적게 경험하나, 배우자가 주부양자인 경우에 비해 며느리나 사위가 주 부양자인 경우 관계악화 정도가 높아지고, 노인이 치매를 앓는 경우에 비해 치매와 뇌졸중을 같이 앓는 경우도 가족과의 관계악화정도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개의 변수는 시설거주노인 부양자의 관계악화를 24.2% 설명하며, 12개의 변수 중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마지막으로 시설부양자의 경제부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으나, 전체 12개의

Table 7. Caregiving burden of caregivers for the elders in nursing homes

	Constriction		Aggravation of family relation		Economic burden	
	B	$\beta$	B	$\beta$	B	$\beta$
Sex of caregiver(1=female) <sup>a</sup>	-.014	-.011	.016	.017	.115	.088
Income	.000	-.130	-.001	-.225**	.000	-.118
Health state of the caregiver	-.156	-.199*	-.186	-.303***	-.050	-.058
Occupation1(1=part-time) <sup>a</sup>	.005	.003	.095	.160	.226	.133
Occupation2(1=housewife) <sup>a</sup>	-.346	-.260*	-.152	-.146	.130	.089
Relation1(1=daughter(son)-in-law) <sup>a</sup>	.294	.213	.339	.315*	-.213	-.142
Relation2(1=daughter, son) <sup>a</sup>	.199	.155	.152	.151	-.377	-.271
Disorder1(1=stroke) <sup>a</sup>	-.124	-.093	.002	.002	-.246	-.170
Disorder2(1=dementia+stroke) <sup>a</sup>	.456	.166*	.428	.201*	.259	.087
Disorder3(1=illness) <sup>a</sup>	-.110	-.083	.034	.033	-.074	-.052
Emotional service	-.131	-.050	-.106	-.052	.068	-.024
Instrumental service	.639	.230**	.293	.135	.180	.060
Regression invariableness		1.772		1.849		2.299
R <sup>2</sup>		.184**		.242***		.149*

p<.05 \*\*p<.01 \*\*\*p<.001,

a=dummy variable : sex of caregiver(1=female, 0=male), occupation1(1=part-time, 0=full-time, housewife)

occupation2(1=housewife, 0=full-time, part-time), relation1(1=daughter(son)-in-law,

0=spouse, daughter, son), relation2(1=daughter, son, 0=spouse, daughter(son)-in-law),

disorder1(1=stroke, 0=dementia, dementia+stroke, illness), disorder2(1=dementia+strokes,

0=dementia, stroke, illness), disorder3(1= illness, 0=dementia, stroke, dementia+strokes)

변수는 시설부양자의 경제부담을 14.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재가노인부양자와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부양자,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양부담의 차이 및 영향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부양자 177명과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부양자 189명, 시설거주노인의 부양자 138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양자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부양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부양자가 남자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이며,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노인의 증상 정도가 심각한 경우 시설부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가정부양과 시설부양을 비교 분석한 임미영 등(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남자이며 젊은 계층이고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시설부양을 하는 비율이 높게 되는 것은 역할갈등의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부양자의 여러 가지 역할이 서로 상충할 때 역할긴장이 증가되어 시설입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데(Morycz 1985) 남성이면서 젊은세대 그리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주부양자가 되는 경우 사회적 역할과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서로 갈등하게 되면서 시설부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주부양자가 아들이나 딸인 경우 시설부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미영 등(2006)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인 경우 시설부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애(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배우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 시설입소의향이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는 선행연구들은 치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뇌졸중 노인 및 와병노인까지를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구결과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양자가 여성이고 나이가 많고 배우자이며 가정주부거나 무직인 경우 가정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결과에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인 배우자를 부양한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으나, 결과를 집약적으로 볼 때 여자노인이 배우자를 부양하는 주부양자인 경우 가정부양을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부양에 대한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세대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해자(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부양자와 노인의 특성에 따라 부양형태가 달라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부양형태에 따라 주부양자의 부담에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모든 부양부담에서 재가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이 가장 높았다.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정내에서 노인을 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부양자의 부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이나 시설이용이 부양자의 부담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김윤정(2006), 이해자(2006), 임미영 등(2006), 김성호(2001)의 연구에서 노인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낮아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공적부양이 사적부양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공적부양서비스 이용전후를 비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이에 관한 보다 명확한 연구를 기대한다.

셋째, 부양형태별로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차이가 났다. 먼저, 재가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에는 가정소득, 부양자의 건강상태, 근무형태와 피부양노인이 치매를 앓는가와 정서적 서비스가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부양자의 부담에는 부양자의 건강상태, 정서적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시설부양자의 부양부담에도

부양자의 건강상태,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 노인의 질환, 도구적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부양형태에 따라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는 반면 각 부양형태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변수가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양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겠다.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Table 1에서 보듯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여서 집단에 따라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단에게서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재가노인과 주간보호시설이용노인의 부양자와 같이 가정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에게 건강상태는 부양부담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노인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시설부양자에 비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재가노인의 부양자는 가정내에서의 24시간의 부양으로 인해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건강상태는 부양부담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재가노인 부양자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원이 일정시간 부양을 대신함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보건소나 병원에서 재가노인 주부양자의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부양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부양자를 위한 휴식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노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가도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노인이 치매를 앓는 것에 비해 뇌졸중이나 와병상태인 경우 재가노인 부양자의 속박감과 가족관계악화 정도가 감소되었다. 또한 노인이 치매를 앓는 것에 비해 뇌졸중과 치매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앓는 경우 시설부양자의 속박감과 가족관계 악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치매를 단일하게 앓던 복합적으로 다른 중세와 나타나던 간에 노인이 치매를 앓는다는 것은 부양자에게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미영 등(2006)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함으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치매노인과 그 부양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각 기관별로 공유하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장기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서적서비스도 여러 부양형태의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수였다. 즉, 노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거나 함께 오락을 하는 등의 정서적 서비스는 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부담까지도 감소시킨다는 결과에서 재가노인과 그 부양자가 정서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도구적 서비스는 재가노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설부양자의 속박감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입히고 먹이고, 용변에 도움을 주는 행위가 부양자의 심리적 육체적 속박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또한 그러한 도구적 서비스는 가정경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즉, 부양자의 외부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노인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경제적인 소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경제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설부양자의 경우 도구적 서비스 제공이 상당량 감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구적 서비스의 제공이 속박감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노인을 시설에 맡기는 부양자들이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할 만큼 지쳐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피상적이 되어 있고 따라서 조금의 도구적 서비스 제공도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설 부양자들의 부양의무를 행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기 전 이미 가족이 소진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시

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여전히 팽배해 있고 따라서 자신의 부모를 시설에 입소시키기 전까지 가족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부양을 하였을 것이고 결국에 가서 시설에 입소시킨 가족 부양자들은 더 이상 부양을 제공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아주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시설은 모두 유료 양로원으로서 우리나라 유료양로원의 경우 일정준비의 소득이 있는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모두 서비스를 시설에서 제공해 줘야 하는 인식이 부양자들에게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의 다양한 형태가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을 다르게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계층과 건강상태를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으나 연구대상의 포괄성에서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유료로 주간보호센터나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과 무료로 이용하는 대상을 모두 포함함으로서 부양형태에 따른 부양부담을 보다 면밀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부양서비스의 측정에 있어 각 집단에 맞게 다르게 측정함으로서 집단 간 부양서비스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없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또한 각 집단에 적합한 측정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이었으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부양부담과 같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는 제한점이 될 수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발전된 측정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선옥(2001)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센터 이용 후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실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호(2001) 치매노인 시설 입소 전후의 가족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2000) 사회적 지지 관점으로 본 가족부양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정(2006) 노인부양부담에 있어 노인부양모델의 효과성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79-101.
- 대한노인신문사(2006). 노인복지총람.
- 마법순(1999)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주간보호소 이용 부양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2002) 한국과 일본에서 장애노인 가족부양자 의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 가족부양과 사회적 보호서비스는 대체적 관계인가 보 완적 관계인가?. 한국노년학 22(1), 241-260.
- 서병숙·이신숙(1993) 농촌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 의식과 부양수행행동. 한국노년학 11(2), 191-207.
- 신영미(1998)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종우·한혜경·황성철·김정희(2000)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비용편의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3, 270-298.
- 이수진·박호란·김남초(2005) 주간보호시설과 재가 치매노인 주간호자의 삶의 만족과 부담감, 노인 간호학회지 7(1), 37-46.
- 이현순·오진주(2002) 치매주간호자의 치매관리전략 영향요인과 부양부담 관계연구. 지역 사회간호학회지 13(4), 629-638.
- 이혜자(2006)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여부가 치매 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6(2), 329-346.
- 임미영·김윤정(2006)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형태별 부양스트레스. 노인복지연구 34, 164-185.
- 조진명(1999) 부양서비스가 노인과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1999)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 세계 노인의 날 기념 제 5회 세미나자료집.
- Brody EM(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 19-29.
- Gottlieb BH, Johnson J(1995) Impact of day care programs on family caregiver of persons with dementia. Guelph, Ontario: Gerontology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Guelph.
- Guttman R(1991) Adult day care for Alzheimer's patients:Impact on family caregivers. New York: Garland.
- Pratt C, Schmall V, Wright S(1986) Family caregiver and dementia,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February 119-124.
- Zarit SH, Stephens MA, Townsend A, Greene R(1998) Stress reduction for caregivers: Effects of adult day care us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53B(5), S267-S277.